

EG 7월 국제가격 12.7% 상승!

일본 정기보수 끝나면 가격 조정 ... P-X 및 프로판은 하락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EG(Ethylene Glycol) 및 나프타 가격은 상승한 반면, P-X, 프로판, 메탄올의 거래가격은 하락했다.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2003년 7월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은 유가상승과 맞물려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제원자재 전체에 대한 협회 KOIMA 지수는 113.11로 전월대비 2.23p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시현했다. 특히,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돼 가격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상승 탓에 나프타 가격도 5.14% 올랐으나 일본의 에틸렌 생산공장 정기보수가 끝나는 시기를 앞두고 있어 수요대비 공급이 초과되면 다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프로판과 P-X, 메탄올 등 석유화학 원료 가격은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부진의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약세를 시현하고 있다.

합성섬유 원료인 EG 가격은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SARS 해소, 중국의 수요 증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옅티마 플랜트의 가동중단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고철 및 철강재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수요증가로 전품목에 걸쳐 상승세를 보였다.

고철, 빌레트는 중국의 수요 강세로 내수가격이 상승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회복되면서 구매가 늘었으나 가격 상승을 관망하는 바이어들이 적극적인 실거래를 주저하고, 일본 제강기업들이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 거래는 점차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선철도 중국시장의 호조 분위기와 운임비 상승으로 오름세를 시현했다.

대부분의 비철금속 역시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 소식과 국제유가 상승,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상승했다.

아연과 납은 유럽 생산기업들이 감산 가능성을 비치면서 강세를 보였으며,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지표 등 시장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19>